

에볼라의 정치경제학

최규진

에볼라 현재 상황에 대한 WHO 12일 보고

- WHO는 9일 기준 기니·라이베리아·시에라리온·나이지리아·말리·스페인·미국·세네갈 등 총 8개 국가에서 에볼라 감염자는 1만4098명이며 이 중 사망자는 5160명이라고 12일 발표.
- 대부분 환자는 서아프리카 3국에서 발생. 라이베리아가 감염 6천명 사망 2천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다음으로 시에라리온 감염 5천명 사망 1천명, 기니가 감염 2천명에 사망1천명임.
- 발병 종료를 선언한 나이지리아는 감염 20명이 사망 8명, 아프리카 주요 발병 3개국과 나이지리아 이외의 나라에서 감염된 사례는 말리·세네갈·스페인·미국 등 4개국에서 현재까지 감염자 10명·사망자 5명임.
- ➔ 공기전파가 아니라는 아주 커다란 특징이 있음. 증상이 발현된 후에야 전염력이 있다는 사실도 중요함. 그리고 감염됐다 회복된 사례 분석을 통해 초기 수액공급, 전해질 조절 등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회복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짐. 따라서 공포를 과장해선 안됨.

에볼라의 역학적 유행 원인

출처_NATURE: The Ebola questions_번역 양병찬

- 같은 필로바이러스에 속하는 마르부르그 바이러스 연구를 통해 밝혀진 전파경로는 '박쥐의 체액에 접촉하는 것'. 하지만 실험실에서 마르부르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박쥐의 입안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므로, "야생 과일 박쥐가 깨문 과일을 다른 동물이 먹을 경우 바이러스에 감염된다"고 추론하고 있음.

- 에볼라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박쥐가 자연숙주일 거라는 것은 확실시되고 있음. 1976년 최초의 에볼라 창궐사태가 발생했을 때, 처음 감염된 6명의 수단 근로자들이 일했던 작업실이 박쥐의 소굴이었음. 그 이후로 과학자들은 박쥐로부터 에볼라바이러스 항체를 분리하고, 바이러스의 유전물질 조각도 찾아냄. 그러나 유행지의 야생박쥐에서 바이러스를 직접 분리해낸 사례는 없음.

에볼라 유행의 사회적 원인_1976년의 시사점1

출처_NEJM / Ebola Then and Now/ Joel G. Breman, M.D., D.T.P.H., and Karl M. Johnson, M.D.

- 콩고사례: 1976년 이후 대규모 발병의 다수는 감염된 원숭이나 과일박쥐의 접촉으로 시작되었는데, 적어도 초기에 감염된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부족한 식량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숲으로 찾아들어가게 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었음.
- 감염자들은 자이르에 위치해 있고 120개의 침상이 있는 얀부쿠(Yambuku) 미션 병원 (YMH)으로 후송됨. 열균 처리되지 않은 주사와 바늘을 통해 처음 그 바이러스가 확산되었음.
- 그 병원에 있는 직원 17명 중 13명이 병들었고 그 중 11명이 사망했음. 의학 감독관과 세 명의 벨기에 선교사가 에볼라로 사망하자 병원은 문을 닫았으며, 감염된 많은 사람과 보균 용의자들이 제 기능을 못하는 서양 의료 체계를 두려워하고 의심하여 자기네 고향 마을로 도망갔고 전통적인 치료사에게 치료를 구하며 더욱 통제가 어려워짐.
- 다행히 적절한 후속조치로 대유행으로까지는 가지 않았으나 280명이 사망함.

에볼라 유행의 사회적 원인_1976년의 시사점2

출처_Mapping Ebola in wild animals for better disease control / SEBASTIAN FUNK AND PETER PIOT

- 수단사례: 1976년 콩고(자이르)보다 앞서 에볼라가 발견된 곳은 수단 나자라(Nzara) 마을의 솜 공장이었음.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서 처음 발견됨.
- 공장 노동자 3명이 에볼라에 걸렸으나, 그들은 같은 마을에 살지도 공장에서 같이 친분도 없었음. 근무 시간에도 그들은 서로 접촉할 일이 거의 없었음.
-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연구팀 기록에 의하면 2000명 직원이 일하던 나자라 솜 공장 지붕에 과일박쥐 수천 마리가 매달려 있었다고 함.
- 이후 조사에서 중앙아프리카에 서식하는 박쥐 3종과 서아프리카에서 사는 박쥐 4종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항체 발견.

➔ 이를 통해 유추해볼 수 있는 것은 박쥐 자체가 에볼라의 1차 원인이긴 하나 아프리카에서의 무분별한 삼림벌채와 비위생적인 노동조건이 중요한 배경임을 알 수 있음. 즉, 무분별한 삼림개발로 인해 박쥐의 서식지가 사람과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거나 사람들이 직접 숲으로 이동하게 됐고, 비위생적인 공장, 그리고 빈곤이 그 접촉을 촉진 시켰다고 할 수 있음.

2014 에볼라 유행의 역학적 원인

출처_PHM report:<Ebola Epidemic Exposes the Pathology of the Global Economic and Political System>

- 최근 에볼라 발발은 2013년 12월 기니의 외딴 숲 속 마을에 시작. 식구들은 박쥐를 사냥하곤 했다고 함. 첫 희생자는 2살 난 유아였음. 이후 아기의 누나와 어머니도 에볼라에 감염돼 목숨을 잃었으며, 이들 장례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통해 에볼라가 퍼져 나감.

- 환자가 일부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열악한 공중보건체계는 전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오히려 감염의 병원소가 되어 환자와 의료인 모두 일반 대중에게 감염의 전파원이 됨.

- 그나마 있던 진료소들마저 문을 닫거나 의료진이 도망간 상황. 장비를 갖추어 진료소를 열더라도 현지인들의 문화를 고려하지 않은 강압적 격리조치로 인해 전통의사들과 현지인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음.

➔ 즉, 이번에도 1976년과 마찬가지로 그 시작은 빈곤 때문에 식량과 땀감을 찾기 위해 숲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병원소의 역할을 하는 과일 박쥐와 접촉하게 된 것이었음. 그리고 확산에는 열악한 공중보건 체계가 중요하게 작용함.

2014 에볼라 유행의 사회적 원인1

출처_socialist review : A catastrophic failure to act / 2014. 11 / tokunbo-oke

- 제2차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 호황기에 많은 아프리카 나라들의 경제는 해마다 6 퍼센트 정도 성장함. 돈을 더 많이 빌려 수출 부문을 확대하는 정책이 이 나라들에게 장려됨. 1970년대 초 세계경제가 위기에 빠지자 그 빛은 엄청난 부담이 됨. 설상가상으로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수요가 이전 같지 않자 경제위기를 겪음.

- IMF와 세계은행이 이 나라들에 개입해 공공부문과 공공시설의 민영화, 농업 보조금 철폐 등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강요. 독립 이후 구축해 온 교육과 보건 체계는 몇 년 만에 거의 붕괴함. [영국] 토니 블레어 노동당 정부는 아프리카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영국에 와서 일하도록 고무했고, 그 결과 아프리카 나라들에서 전문인력은 더 줄어들음. 라이베리아는 인구가 4백만 명이 넘는데도 공중보건 체계에서 일하는 의사가 50명도 채 안 됨.

➔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자 많은 아프리카 나라에서 지배계급 내 정치적 분열이 커졌고 이는 잦은 내전으로 치달음. 에볼라가 견잡을 수 없이 번지는 서아프리카 3국은 하나같이 이러한 끔찍한 무력 충돌을 오랫동안 겪은 곳들임.

2014 에볼라 유행의 사회적 원인2

출처_PHM report:<Ebola Epidemic Exposes the Pathology of the Global Economic and Political System>

- 라이베리아, 기니, 시에라리온은 UN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 순위가 187개국 중 각각 175, 179, 183위. 아프리카 안에서도 가장 가난한 국가에 속함. 이 국가들의 의료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많은 지역에서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상황.

- 기니의 에볼라 발병 지역은 최근 기업식 농업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지역이었음.

- 라이베리아에서는 이미 거의 한 세기 전부터 농지가 환금 작물을 위해 이용된 나라임. GDP 중 외국직접투자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 시에라리온은 오랜 내전으로 국가경제가 몰락한 상황

* 라이베리아, 기니의 경우 : 기업식 농업 → 농지 장악 → 삼림벌채 → 삼림 지대에 새 길이 뚫림 → 빈곤으로 굶주린 사람들이 숲 속으로 더 쉽게 들어가 에볼라의 자연 숙주와 쉽게 접촉

* 시에라리온 경우 : 초국적 기업과 자본주의국가들의 이해관계 → 다이아몬드채굴 → 내전의 주요원인으로 작동 → 대규모 이재민 발생 → 많은 이들이 숲으로 들어감

에볼라 대한 대응: 1976년의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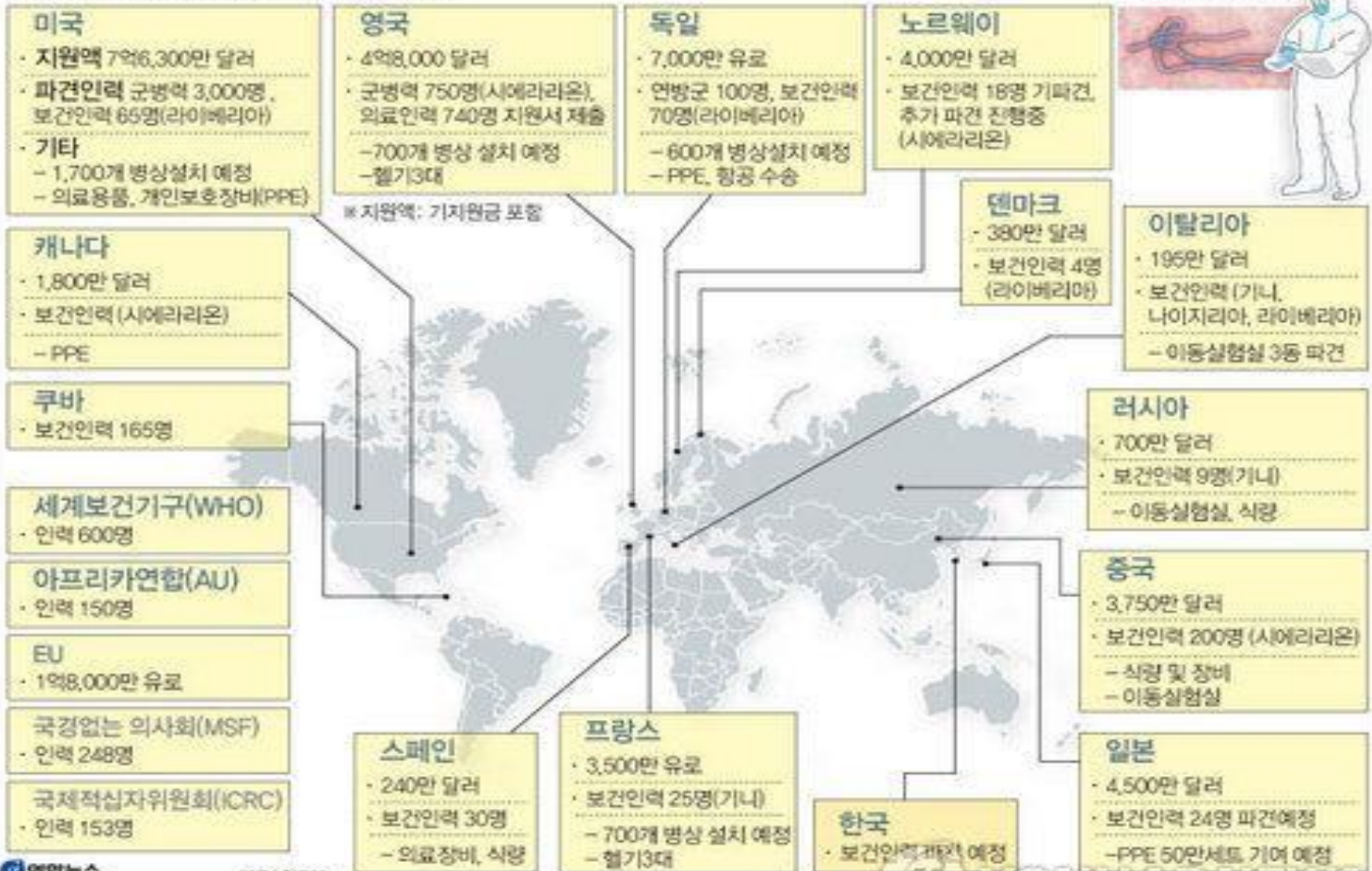
출처_NEJM / Ebola Then and Now/ Joel G. Breman, M.D., D.T.P.H., and Karl M. Johnson, M.D.

- 당시 콩고 정부는 뭄바(Bumba) 지대에 275000명을 격리함. 그러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취한 격리조치 때문에 기본 생필품이 부족했고, 시민들이 크게 동요함.
 - 미국 및 국제 과학자들이 팀을 구성하여 급파되어 의학적 치료를 시작함. 팀을 구성하여 마을단위 방문을 시작함. 친척을 애도할 때 머리를 깎는 현지 전통을 파악한 후 위험군을 쉽게 식별할 수 있어 집중 관리와 교육에 들어감.
 - 주민들이 신뢰하는 선교사들을 동원하여 마을마다 방문 진료 및 교육을 실시함.
 - 병원에도 외국의 의사가 아닌 자이르의 의사를 배정함.
- ➔ 전통적 방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조치를 취함. 증상이 발생하면 마을 밖 오두막에 머무르는 전통이 있었음. 이는 천연두 환자를 격리할 때 쓰는 방법이었음. 진료실을 마련하기까지 이러한 방식을 장려하였고, 각 환자에게 음식과 약물을 가져다 줄 한 가족 구성원(병에서 회복되기에 유리한 사람)을 지정함. 주민들을 설득하여 환자가 사망시엔 전통 의식은 간소화함. 시체들을 하이포아염소산염 살균제로 덮고, 수의로 감싼 다음 일상적 세척 없이 묻은 다음 친척 및 친구와의 접촉은 지연시킴.

에볼라에 대한 현재의 대응

에볼라 대응 세계 각국 지원현황

10월17일 현재



에볼라에 대한 현재의 대응

By Drew Hinshaw ■ 출처_Wallstreet journal 2014.8.21



Getty Images

에볼라 태스크포스의 일부인 라이베리아 군인이 20일(수) 수도 몬로비아의 슬럼가 웨스트포인트에서 격리 조치를 취하는 중 한 주민을 쫓고 있다.

20일(수), 라이베리아 군대가 수도 내 에볼라 발생 지역에 설치한 격리소를 탈출하려는 젊은이들에게 발포했다는 여러 목격자의 진술이 나왔다.

- 몬로비아 주민들은 에볼라 발병 진원지처럼 보이는 격리센터 설치에 반대함. 한 시민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당국에 이곳에 치료소를 설치하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우리는 에볼라를 믿지 않는다”고 주장함.

- “29명의 환자 가운데 습격 후 17명이 달아났고 9명은 나흘 전 사망했으며 나머지 3명은 16일 친척들에 의해 강제로 퇴원시켜졌다”.

출처_AP 통신

에볼라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하다!



라이베리아에서의 주민들과 에볼라 퇴치를 위해 강제격리하려는 경찰들과의 대치상황_로이터

- 서아프리카 정부들의 독단적 봉쇄정책이 오히려 피해를 더 키움.
- 에볼라를 앓고 있는 환자는 물론 살아남은 가족과 회복한 이들과까지 고립시키고 있음.
- <뉴욕 타임스>에서 소개한 시에라리온 은 잘라 응기에마 마을의 예. 응기에마는 쌀과 카사바 농사로 생계를 꾸려가던 인구 500명 규모의 작은 마을이었는데, 에볼라로 61명이 사망. 정부는 살아남은 주민들까지 마을을 떠나지 못하게 봉쇄해버림. 식량과 의료 서비스조차 제공하지 않아서 주민들이 영양실조와 기아로 숨짐.
- 국제적인 국경봉쇄 조치가 강화되면서 원조물자가 제대로 도달하지 못하면서 악영향을 끼침.
- 감염 지역 자체가 거대한 감옥이자 격리 수용소인 상황. 라이베리아 정부는 감염 도시를 폐쇄하고 이에 저항하는 주민을 무력으로 진압. 시위에 나선 17세 소년이 군경의 총에 맞아 사망하기도 함.

에볼라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하다!

출처_시사인 "공포의 에볼라 인재인 까닭"/김영미 국제문제 전문 편집위원

- 정부의 통제와 국제사회의 지원에 대한 이탈과 저항은 미개한 생각이나 물욕(物慾)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님.
- 지금도 현대 과학보다 주술과 마술을 신봉. 방호복을 입은 의사들을 괴물처럼 여기는 상황. 더욱이 에볼라는 발병에서 사망까지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병원으로 이송되어 금방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 '의사들이 환자를 죽인다'는 소문이 퍼짐. 이에 따라 상당수 주민들은 에볼라 치료소 설치를 두려워하며 반대함.
- 웨스트포인트의 한 젊은이는 "의사와 간호사라는 자들이 병을 고치는 사람들이라고 믿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이 에볼라를 뿌리고 다니는 것이다"라고 단호하게 말함.
- 라이베리아 보건 당국의 한 관리의 말, "라이베리아의 빈곤층이나 시골에서는 전통적으로 주술사들이 병을 치료했다. 서양 의사들이 오는 바람에 그들의 입지가 좁아졌다. 그래서 의료진들이 오히려 병을 퍼뜨린다는 소문을 만들어낸 것 같다"

➔ 이것은 현대 서구식 전염병 통제 방식의 도입 시에 어느 사회에서나 있었던 상황임, 따라서 지역사회 문화, 제도, 인력을 활용한 유연한 접근 필요. 더욱이 에볼라는 공기전파가 아니라서 교육과 관리만 잘하면 되니까!!

일단 드러난 모순들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개혁해내야 한다

-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세계보건기구에서 유행성 질병과 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하는 부서의 예산은 절반 가까이(2천6백억원 가량) 삭감함.
-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전 CEO가 세운 빌앤멜린다게이츠재단(게이츠재단)의 아프리카 농업 진흥관련 기금 30억달러(약 3조2300원)중 대부분이 미국과 영국 등 부국에 지원됐고, 단 10%만 아프리카에 쓰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가디언이 4일 보도. 지난 10년 동안 이 기금의 절반인 약 15억달러는 세계은행, 유엔 기관들, 아프리카에서 첨단농업을 촉진하는 단체, 글로벌 농업 연구조직으로 지원. 나머지 절반은 전세계의 연구 및 개발기관에 제공. "게이츠재단의 기금 대부분은 농부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스스로 개발하는 (기아 문제) 해결책을 돕는 것이 아니라 첨단 과학 장비를 개발하는 쪽으로 갔다"
-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85명이 소유한 재산은 1초에 7천7백 달러(약 8백44만 원)씩 증가하고 있다(국제 구호단체 옥스팜). 부자 85명이 36시간 만에 에볼라를 막는 데 필요한 돈 10억 달러(1조 원)를 모을 수 있음. _ <소셜리스트 워커>(2428호)

일단 드러난 모순들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개혁해내야 한다

- 질병통제의 과정은 제국주의적 야욕이 쉽게 접목되곤 함. 미국과 중국의 지원과 쿠바의 지원을 다르게 보는 이유이기도 함. 이를 제어하고 진정한 아프리카에 의학적,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

- 10월 23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 연구진은 10년 전 동물실험에서 100퍼센트의 효과를 보이는 에볼라 백신을 개발했으며 이를 학술지에까지 게재했었음. 에볼라 유전자를 조합해 체내에 에볼라 면역체계를 형성하는 원리로, 원숭이 실험결과 완벽하게 바이러스를 막아냈고 당시 연구진은 2년 안에 인체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 돌입하고 2010~2011년사이에 백신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결국 정부나 제약회사의 지원 부재로 개발 못됨.

- 마거릿 찬 WHO 사무총장은 아프리카 베냉에서 열린 지역회의에서 "거의 40년 전 에볼라가 등장했는데 왜 아직 백신이나 치료법이 없는가"라고 자문하고 "에볼라는 역사적으로 아프리카의 가난한 국가들에서 제한적으로 창궐했기 때문에 이익을 추구하는 제약업계에 연구개발(R&D) 인센티브가 사실상 없었다"고 지적함.

➔ 만약 스페인과 미국 국적의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에볼라 감염자가 한국에서 발생한다면? _ 미국의 사례

- 던컨의 조카 조지퍼스 위크스(Josephus Weeks)는 델러스 모닝 뉴스에 보낸 기고문에서 "삼촌은 건강보험도 없고 치료비를 지불한 재산도 없는 유색인종 남성이었다. 토머스 에릭 던컨은 붕괴된 시스템의 희생자였다. 내 삼촌의 죽음과 관련하여 답을 듣지 못한 가장 큰 의문은 왜 병원이 환자가 최근에 라이베리아에 다녀왔으며 에볼라 위험 때문에 귀국했노라고 명시적으로 말했음에도 열이 103나 되고 위통이 있는 환자를 집으로 돌려보냈는가라는 것이다." → 타이레놀만 주고 돌려보낸 이유는?

- 우익들은 미국의 아프리카 지원의 모순과 국내 시스템의 모순을 감추기 위해 던컨과 감염된 간호사들을 인종주의적으로 비방하기 바빴음. 우익언론들은 Bushmeat를 일면으로 뽑으며 아프리카의 미개함만을 선전함. 오바마 행정부는 치료가 끝난 니나 팸과 포옹하는 쇼를 했지만 델러스의 두 간호사, 니나 팸과 앰버 빈슨과 같은 보건 의료인을 보호할만한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연방 관료조직을 눈감아줌. → 전국간호사협회가 파업을 했고, 이를 통해 겨우 인식전환을 견인됨.

- 오히려 에볼라 위기를 이용하여 우파들은 공중보건과 관계없는 국경통제강화 정책과 인종주의와 관련된 모든 것을 포함한 반동적인 의제를 밀어붙였고, 오바마는 미국의 위상을 공고화하기 위해 의료진이 아니라 미군 병사를 배치 → 한국은 다를까?

에볼라 감염자가 한국에서 발생한다면?

- 현재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_사스와 같은 공기전파 전염에 대비한 격리시설임. 에볼라와 같은 고위험성 접촉감염에 대한 대비가 아님.
- 현재 17개의 국가지정병원이 있으나 병원 영업에 방해된다고 공개하지 않고 있음
→ 심지어 자신의 병원이 지정병원인지도 모르는 사례 발생. 빠른 신고 빠른 조치가 핵심인데 이걸 공개안하는 것은 에볼라의 공포만 조장하는 것임. 오히려 에볼라에 대해 정확히 알리고 이에 대한 실질적 대비능력을 강화하는게 필요.
- 에볼라 확진을 위해서는 BL4 수준의 혈액검사 시설이 필요. 현재 BL4 혈액검사 할 수 있는 곳은 한국에 없으며, 그나마 가능한 곳이 오송. 정서조절이 중요한데 격리만 가능. 현재 격리시설로는 대화조차 할 수가 없음.
- WHO 5팀을 권고, 즉 3교대로 따지면 15명이 필요, 그러나 이런 인력을 준비할 수 있는 병원은 없음. 민영병원이 이런 시설과 이런 인력을 배치할리 만무하고 심지어 현재 흑자적자 논리를 들이대는 공공병원에서조차 이렇게 조치할 수 없음.
- 간호사 및 의료진에게 교육을 시키고 위험수당 보상체계 등을 확실히 제시해야 함.

근본적인 접근 없이는 제2, 제3의 에볼라가 올 수밖에 없다!

- 에볼라 유행은 제국주의 열강의 각축전과 수십 년에 걸친 신자유주의 정책이 아프리카 대륙을 할퀴고 파괴한 결과물임.
- “아프리카인들에게는 에볼라 창궐의 원인인 ‘마녀’가 지금의 경제난과 내전의 싹을 심어놓고 도망간 유럽 열강과, 지금도 아프리카를 착취하고 있는 선진국들일 수 있다. 지금은 그들에게 ‘마녀’로 지목받고 있는 선진국의 사람들이 자기 몫을 해야 한다” _ 한건수 교수(강원대 문화인류학)
- “에볼라의 출현은, 단순히 재앙에 과학기술로 대처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고도로 발달한 세계 자본주의의 첨병들은 원시 정글 땅속 깊은 곳의 지하자원까지 ‘수익률 높이기’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에볼라 바이러스도 ‘개발’하고 말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아프리카 현지 권력자들은 그 수익의 일부를 배분받기 위해 전근대적인 무장력으로 내전을 도발해 동포들을 살육했다.... 에볼라 바이러스가 인류를 위협하고 있지만, 수익률 중심의 서구 자본주의(의료) 시스템은 이에 철저히 무능하다.” _ 시사인 김영미

거시적이지만 직시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

아프리카로부터의 연간 자금유입·유출 내역 단위: 달러, 자료: '정직한 정부' 보고서



1337억 자금유입 총액 295억 순수 원조 유입

1919억 자금유출 총액

463억	다국적기업 이익	210억	부채상환
366억	기후변화 경감·적응	170억	불법 벌목
353억	불법자금유출 (세금회피처 등)	60억	두뇌유출
254억	타국에 대한 대출	30억	외부 송금
		13억	불법 어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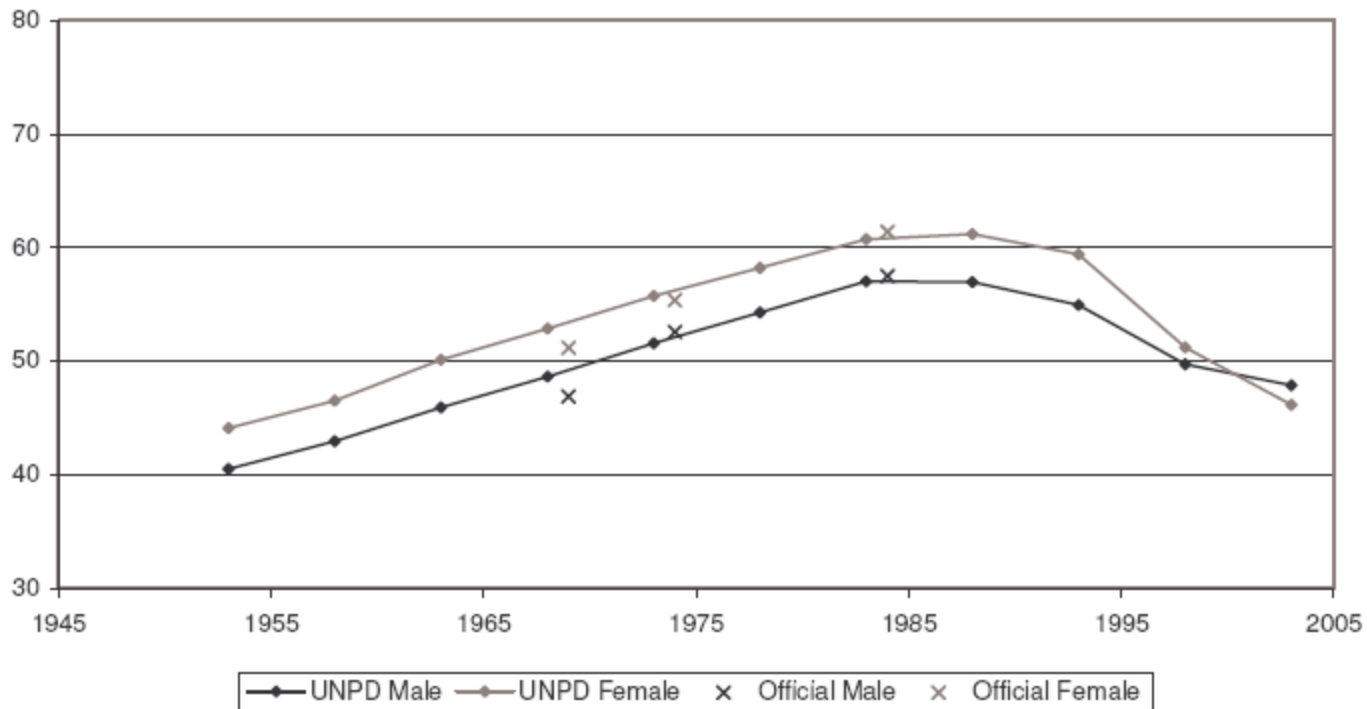
Ebola Exceptionalism? 에볼라만 문제인가?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 평균수명이 감소하는 지역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World Mortality Report 2005

Kenya

Life Expectancy at Bir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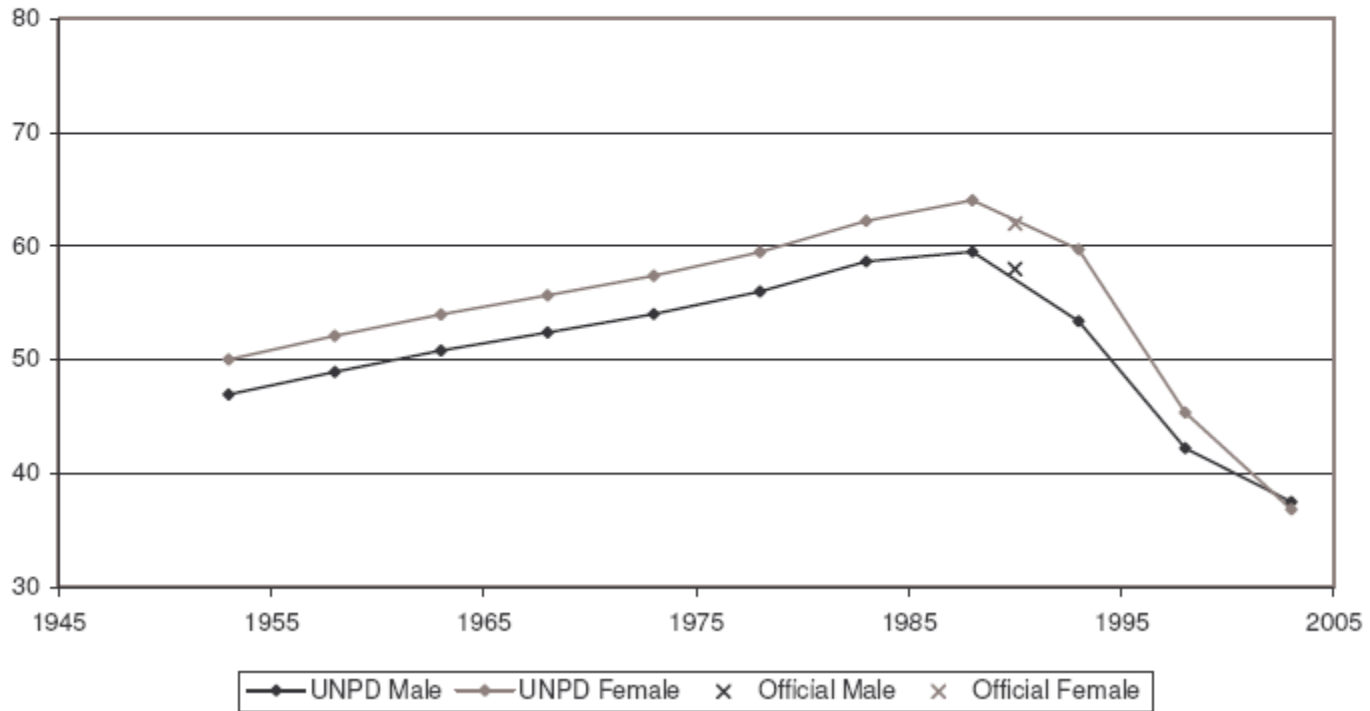


에볼라만 문제인가?

World Mortality Report 2005

Zimbabwe

Life Expectancy at Bir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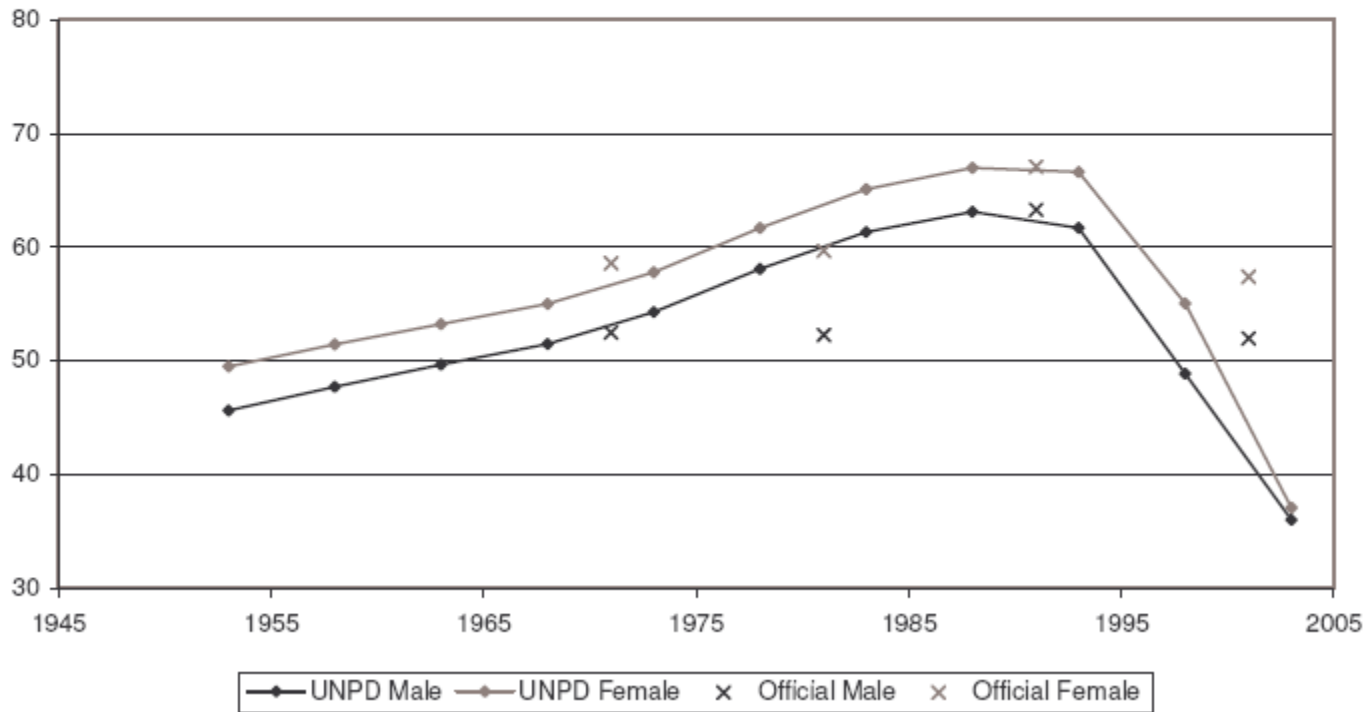


에볼라만 문제인가?

World Mortality Report 2005

Botswana

Life Expectancy at Bir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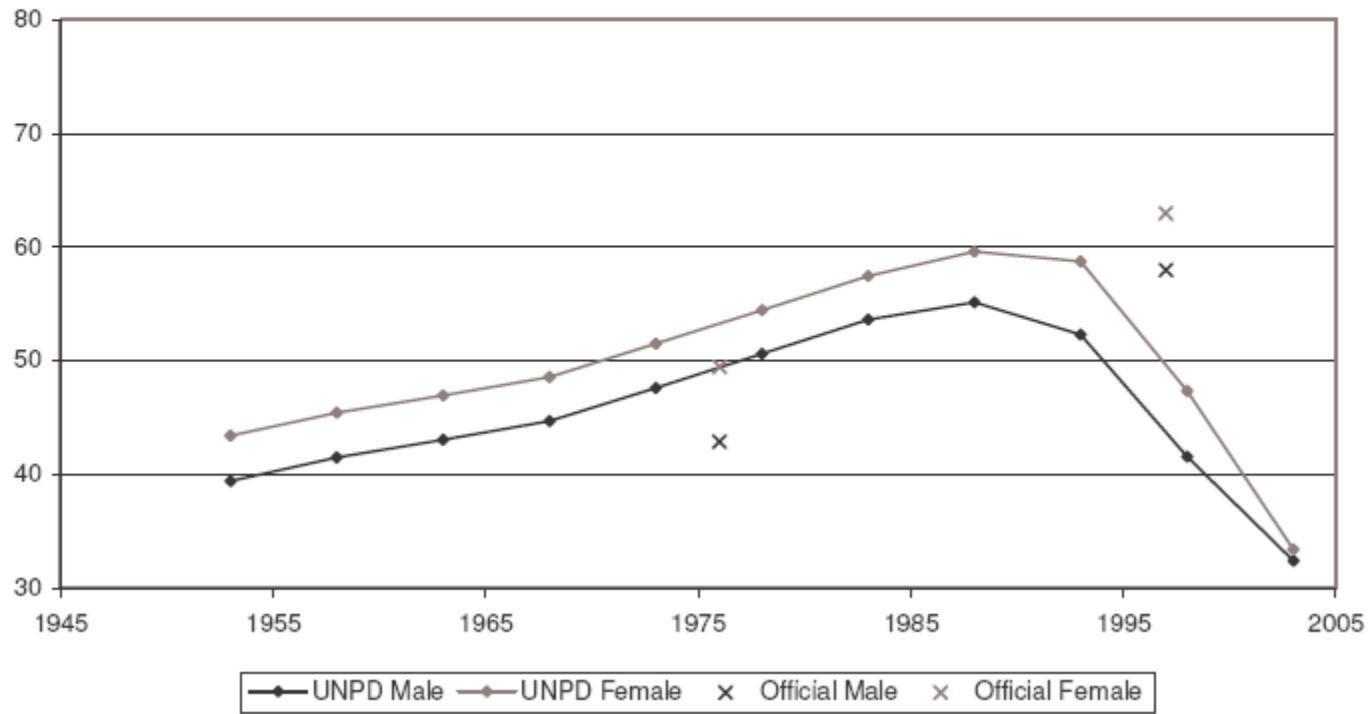


에볼라만 문제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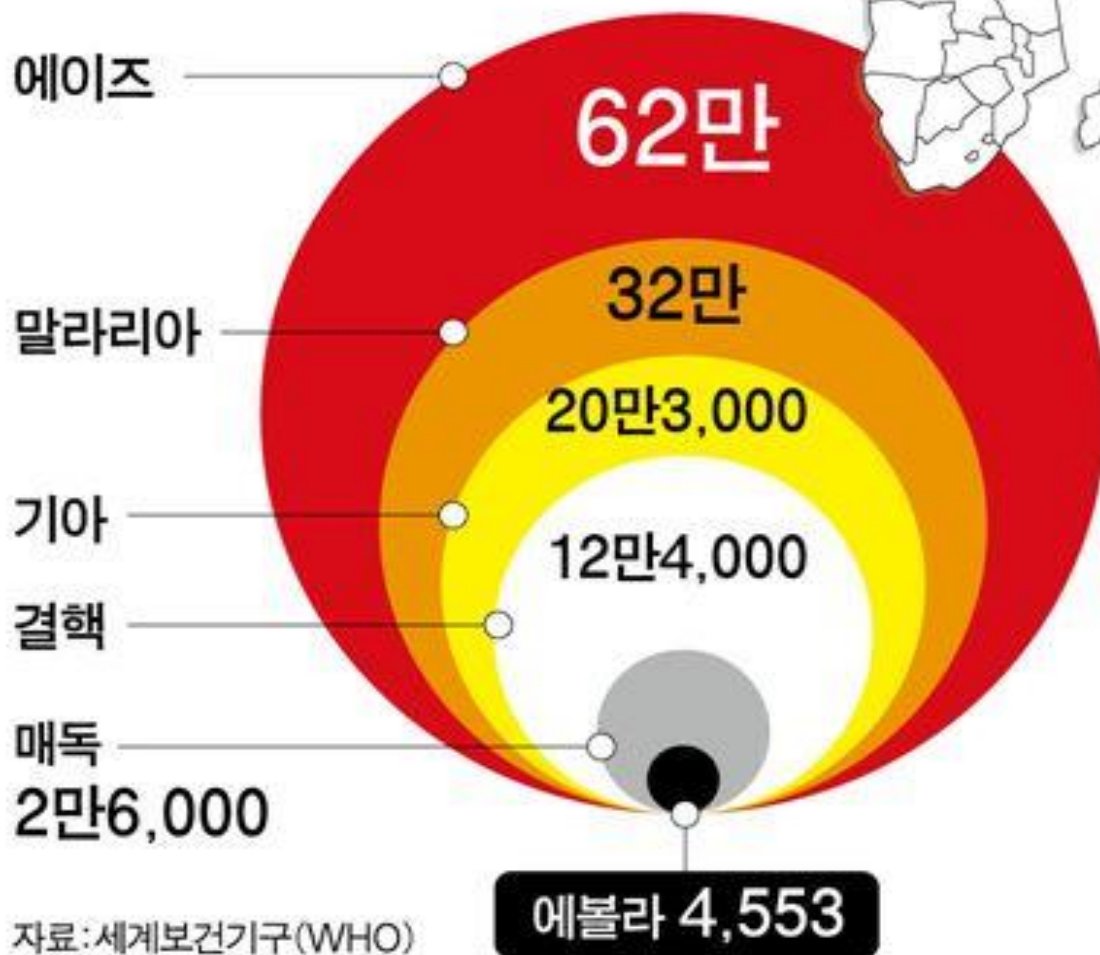
World Mortality Report 2005

Swaziland

Life Expectancy at Birth



2014년 3월 이후 아프리카 질병 사망자 추정치(단위:명)



자료:세계보건기구(WHO)

*
매년 에이즈로
평균 120만명,
말라리아로 60
만명이 사망하
고 있는 현실

결론을 대신하여

에볼라를 통해 드러난 현대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국제사회의 개혁조치가 필요하다.

사실 개혁조치로 가능한 문제일지 모르겠지만...

에볼라는 아주 경미한 경고일 뿐이다.

간단히 생각해 보라.

에볼라가 공기전파였다면?

그래서 인도나 중국으로 번졌다면?

스페인 독감은 세계 인구의 5분의 1을 감염시켰고

그 중에서 최소 2천 5백만 명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

그런데 죽은 2천 5백만명 중 절반은 인도에서 발생했다.

스페인 독감의 치사율은 5%로도 안 되는 것이었는데 말이다.